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현장!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는 성경 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32개국 성도들이 무안단물터를 찾아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다.

인생의 참 가치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고 천국과 지옥의 길림길에 서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선과 화평의 올림픽이 열린다

'2017 만민 하계수련회' 둘째 날 체육대회에서는 국내외 만민 성도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선과 화평의 아름다운 경기를 펼쳤다.

"천국 연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목자의 회생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향,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셋째 날 캠프파이어 간중.

만민뉴스

제803호 2017년 8월 2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놀라운 치료와 응답, 변화와 축복이 임하다

32개국 주의 종과 성도들, 권능의 무안단물터 방문



전 세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이 온갖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등 갖가지 희한한 일들을 체험하는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터에 32개국에서 온 해외 주의 종과 성도들 약 1천 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2017 만민 하계수련회'를 마치고 8월 10일 오전,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위치한 무안만민교회에 도착하여 점심식사, 하늘보기, 침수 등으로 일정을 보냈다.

무안만민교회는 간척사업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곳이어서 지하수를 파도 마실 수 없는 바다의 짠물만 나왔다. 이에 김명술 담임목사와 성도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출 15:25)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2000년 3월,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산상 기도를 받으시고 놀랍게도 짠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 주셨으며, 2007년에는 미국 FDA(식품의약국) 검사 결과 안정성과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문둥병에 걸린 나이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긴 후 깨끗이 치료받은 것처럼(왕하 5장),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담긴 무안단물에 믿음을 가지고 일곱 번 침수한 성도들에게 간증이 넘쳐났다.

태국 티파간 집사(42세, 여)는 "10여 년 전부터 비문증으로 오른쪽 눈에 벌레나 먼지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 같아 항상 눈이 흐릿하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침수한 후 그 증세가 싹 사라져 잘 보입니다."라고 했다. 콜롬비아 라우라 그라나다 성도(21세, 여)는 피부 발진을 치료받았고, 인도 마해쉬 성도(35세, 남)는 눈의 통증이 사라지고 온몸이 가벼워졌다.

이 외에도 시력이 좋아지고 허리, 무릎 등 각종 몸의 통증과 생리통, 고열, 부종, 피부염 등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또한 많은 성도가 침수 시 영안이 열려 주님의 형상과 천사, 보석 등을 보는 영적 체험으로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한편, 무안단물터 동산에서 기도받기 전의 짠물과 기도받은 후의 단물을 시음

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어 '하늘 보기'를 하며 영의 세계를 체험해 천국 소망이 더해졌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일본 아쿠시츠 카즈미 집사(59세, 여)는 오로라 빛과 네 생물 중 사자형상을, 인도 수레쉬 성도(31세, 남)는 해에서 바다와 수많은 사람이 탄 배, 천사, 하트 모양을 보았으며, 태국 아농 성도(26세, 여)는

천사를 보고 해 주변에서 문이 열리며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 외에도 금가루, 은가루, 성령의 검, 십자가, 선지자들, 에덴동산, 크리스털배, 천국열쇠, 큰 천사 등을 본 성도들은 기쁨으로 간증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와 응답, 변화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피부 알레르기를 치료받고 천사도 보니 더욱 믿음이 됩니다!"

지호수야 제나 성도 | 인도 델리만민교회, '살롬 오디샤 어린이 집' 원장 |



저는 2015년 10월, 권능의 무안단물에 침수해 9개월 정도 아프고 힘들었던 눈꺼풀 안의 종기가 사라져 불편했던 증상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무안단물을 인도로 가져와 제가 운영하는 고아원과 고향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지요. 그들도 피부병, 위장병, 열병 등을 치료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는 '만민 하계수련회'를 마치고 무안단물터를 방문했습니다. 목의 피부 알레르기로 10년간 가렵고 상당히 불편했는데, 무안단물에 침수한 후 전혀 가렵지 않고 편안해졌지요. 이뿐 아니라 영안이 열려 천사의 눈과 코, 얼굴을 자세히 보며 영적인 세계까지 체험하니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고 더욱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참 가치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절했기에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도 알게 되니 그 사랑 까닭에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또, 과연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보다 제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찌하든 이뤄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전해 주고 진리를 가르치는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목자의 힘이 되기 위해 죄를 버리고 세상을 끊어 나가게 되지요. 어찌하든 영적 장수가 되어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해도 더 경험과 실력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생명과 바꿔서라도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는 순간에도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리셨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들을 자기 몸보다 사랑하며 섬깁니다.

빌립보서 1장 23~24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호송되어 갇힌 처지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힘들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하루하루 삶을 이어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고 이 땅에 조금의 미련도 없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지옥을 보여주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지옥에서 건짐받도록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지요. 어찌하든 영혼들을 진리로 변화시켜 새 예루살렘성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변화되는 모습, 믿음으로 치료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는 간증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보는 것이 제게는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수록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심방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믿음이 크거나 머리된 일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연단받는 성도가 있으면 합심해 기도해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해 줄 수 있으며, 형편이 어려우면 구제할 수 있지요.

이렇게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 내고 잠시라도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받아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기도와 심방, 구제와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보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길요. 사람이 스스로 쌓은 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만큼 아름다운 천국 처소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요. 이러한 축복은 죄악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고 온 영으로 들어가야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또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길요.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만큼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참된 것을 택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계시니 나는 할 수 있다. 내 목자가 세상 끝 날까지 놓지 않으시니 능히 할 수 있다.”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영광중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한 대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하여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드리기 위해 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이 하나이시며(빌 2:6) 모든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지만 어떤 권세나 영광도 구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멸시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저를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친 7년의 세월이 너무나 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만민의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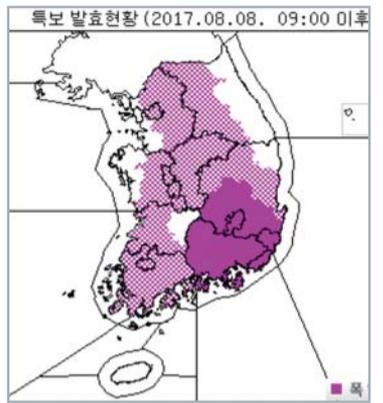
놀라운 기사(奇事)를 체험하며 선과 화평 속에 진행된 글로벌 축제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천상의 바람을 연상케 하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시종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지만, 수련회가 진행되는 전북 무주군은 제외되어(오른쪽 사진) 성도들은 올해도 최적의 맞춤 날씨로 조절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奇事)를 체험하였다.

37개국에서 참석한 만큼 해외 성도들의 출전도 많아 지교회팀(국내의 지교회 및 기타 해외 성도) 우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남녀 100미터달리기, 계주(남 아동학생, 남 주의 중, 남녀 청장년), 남녀 오래달리기, 미니축구, 씨름(90 kg 미만과 이상), 여자 팔씨름(65 kg 미만)에서 총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모든 팀이 선과 화평 속에 하나 됨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어 전 세계 만민의 가족이 주님 사랑 안에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승리의 비결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미니축구 우승은 지교회팀에 돌아갔다. 지교회팀은 대전, 여수, 밀양 등 선수들이 소속된 교회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순조로운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지도를 맡은 박흥영 목사(대전만민교회)는 "연습은 물론 금식과 기도, 그리고 경기를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으며 영육 간에 준비하였더니 드라마틱하게 승부차기로



결승 진출이 결정되는 등 모든 것이 형통하여 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경기에 함께 출전한 파린 에르난데스 성도(콜롬비아)

는 "하나님 앞에 선수로 뛰고 싶은 소망으로 수년간 훈련해 왔는데, 제가 한 골을 넣고 저희 팀이 우승도 해서 너무 기쁩니다. 콜롬비아에 돌아가서도 변화되어 새 예



루살렘 성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여자 줄다리기는 1대대팀이 5연패의 기록을 달성했다. 감독 배정녀 권사 역시 다니엘철야 시 예를 심으며 기



도로 대회를 준비하였다. 선수들도 '5연승'을 목표로, 다니엘철야가 마친 뒤에도 행복하게 연습하면서 어깨 건

파열,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늘어난 손목 인대가 정상이

되는 등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았다. 한편, 여자 팔씨름에서 금메달을 딴 알리나 팔니코바 성도(미국 세크라멘토)는 13살 때부터 섬유근육통으로 등과 몸에 통증이 있

었는데, 첫째 날 은사집회 때 치료받는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만민의 일원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해 이번 수련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짐작케 했다.

남녀 MVP를 비롯,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달리기 선수들

체육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달리기 종목에서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선수들의 활약이 컸다. 남녀 MVP는

남자 100미터·청장년 계주에서 금메달과 오래달리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케투페이 제이콥 성도(왼쪽 사진)와 여자 100미터·오래달리기·청장년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무웬두와 케터린 성도(오른쪽 사진)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 밖에도 무티소 아벨 성도는 남자 오래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에드윈 오티에노 전도는 남자 주의 중 계주에서 1등으로 결승선을 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아래 사진 왼쪽에서 3, 4번째). 선수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직



접 보고 싶은 소원이 이뤄져 더욱 은혜가 넘쳤다.

한편 체육대회 당일 새벽 4시 30분,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는 GCN방송(www.gcntv.org) 생중계로 경기를 시청하던 성도들의 환호성으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체육대회 우승의 열기는 8월 14일, 선수들이 케냐 케냐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식지 않아 수십 명의 성도들이 환희에 찬 모습으로 공항을 가득 메웠고, 금의환향하는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선사해 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8월 22일에는 마사이족 추장 아들인 제이콥 성도의 우승으로 인해 '마사이족 감사예배 및 잔치'가 정명호 목사를 감사로 있었다.



| 러시아 서울지역 선교회 총회장 | 발레리 트레노긴 목사

"체육대회는 매우 조직적이고 잘 준비되었으며, 특별히 모든 성도가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참석한 선수들 역시 하나 되어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스포츠 경기가 오직 성도들 로만 이뤄졌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 에스토니아 TBN 발티아 사장 | 막심 토마소프 목사

"저는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주님께서 만민을 축복하셔서 강력한 하나 됨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종목에 참가해 경쟁하며 상을 받고 서로 축하해 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요. 내년에는 에스토니아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향이 가득했던 감동의 캠프파이어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셋째 날 캠프파이어는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감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회중찬양을 인도하였다. 국내외 성도들은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목자의 희생과 사랑임을 알기에 주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감사와 기쁨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딸의 자폐증이 호전된 만민 하계수련회, 캠프파이어 시 딸과 아들이 수많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마치 사랑가득한 천국 연회처럼 감동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당회장님 기도로 살아난 뒤 꿈꿔온 일이 이루어지니 너무 행복해요!”



| 파키스탄 라호르 | 세리쉬 신시아 자매

캠프파이어는 정말 은혜롭고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뜨거웠지요. 각각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찬양할 때 모두가 하나였어요. 누구도 이방인이 아닌 한 가족임이 느껴져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제게는 더없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곱 살 때 ‘셀리악’이라는 질병으로 몸이 너무 쇠약해서 수술도 받을 수 없었고 의사들은 살릴 방법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던 언니가 제 사진 위에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그 시간부터 파키스탄에 있는 저의 건강이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살아난 후 저는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오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하계수련회를 통해 당회장님과 만민의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영국 런던 | 마티아스 카사사 장로

저는 2014년부터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딸의 자폐증이 호전되어 사모함으로 참석하고 있지요. 제 딸은 당회장님의 기도로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던 아이가 이제는 말도 하고 학교에 다닐 뿐 아니라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를 참석하다 보니 딸과 아들은 한국어로 만민찬양을 곧잘 부릅니다. 올해 캠프파이어 시에도 당회장님과 함께 찬양을 올릴 때 마치 천국에 있는 듯 행복했지요. 더욱이 딸 조아니타(14세)는 ‘목자님의 희생-눈물’ 찬양을 할 때 천사가 비구름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고, 아들 존(11세)은 불꽃놀이 시간에 천사들이 입으로 안개 같은 것을 불어 보내는 것을 보았으며, 수많은 천사가 당회장님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늘 그렇듯 ‘만민 하계수련회’는 최고입니다!



| 에스토니아 탈린 | 그리고리 콜레소브 목사

캠프파이어는 특별히 더 황홀했고, 마치 천국 잔치 같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이곳에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기도하며 이끌어 주셨는지 보여주는 벽찬 감동의 행사였지요. 날씨와 온도도 너무 좋았고, 음악도 훌륭했습니다. 목자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제 마음에도 깊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곳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 각국의 형제자매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찬양했지요. 저희들을 향한 당회장님의 깊은 사랑이 전달 되어 기쁨과 행복이 넘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천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시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충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2층)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람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